IT p/12

윈도XP 종료 대비 이렇게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illegible] www.metroseoul.co.kr

Life p/14

롯데 맥주 클라우드 선보여

연 400억으로 콘텐츠 진흥이라니…

"아바타 제작만 3000억 물정 모르는 탁상행정"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84억원을 지원한다고요? 게임 한 편을 제작하는 데만 해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설마요."(게임업계 관계자)

"영화 '아바타' 제작비만 3000억원이 투입됐는데 고작 400억원이요?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케이블업계 관계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심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음악·영화 등 5대 킬러 콘텐츠 중심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문화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불만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올해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총 384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수출 전략업종 게임 '고사 위기'

우선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게임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가우뚱했다. 한쪽에서는 투자금을 지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게임 산업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문화 장벽이 없는 데다 벤처로 시작해 자생적으로 국제 무대에 서게 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 모델인데 어째 관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선택제'의 이중 규제 아래 놓인 가운데 추속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매출 1% 징수법' 등 그들의 성장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성 높은 수출전략업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한류 열풍 주역으로 꼽히는 음악과 방송의 수출액이 각각 2억3510만 달러, 2억3382만 달러인 데 반해 게임은 12배나 많은 26억3892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지만 외화벌이 측면에서 게임과는 소위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T 분야와 공조도 미흡

'별그대'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케이블업계는 우수한 정보기술(IT)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익숙한 할리우드 영화가 지난 50여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일상생활에 노출된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한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휴대전화, 집, 자동차 등 전 산업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금 규모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화 한 편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단일 분야도 아닌 음악·영화 등에 분산돼 투자된다는 점에 이불생성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 '아바타' 제작비만 3000억원이 투입됐는데 고작 400억원이요? 물정을 모르는 소리예요"라고 안타까워했다.

/[illegible] 기자

리듬체조 요정 '월드컵 4관왕' 6일(현지시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포르투갈에서 열린 2014 국제체조연맹(FIG) 리스본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리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손연재는 개인종합을 포함해 볼·곤봉·리본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 최초로 리듬체조 월드컵 4관왕에 올랐다. <관련기사 23면> /뉴시스

전기·수도 한 번에 원격 검침

2020년 전 가구로 확대

앞으로 매달 가정에서 전기·수도 검침원을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각 가정과 연결된 전력선에 통신 모뎀을 설치해 한번에 전기와 수도를 원격 검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원격 검침을 2020년까지 전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000만 가구 가운데 262만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원격 검침이 이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이 없어진다"며 "2020년까지 전 가구를 원격 검침하는 설비를 구축하면 한전은 연간 2200억원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해외 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정보기술(IT)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illegible] 기자

무인기에 뒤통수 맞은 국방부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한국에서 사는 것 불안하지 않아?"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면 종종 듣는 질문이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북한"이다.

최근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서 잇따라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반이 넘겼던 지인들의 얘기를 곱씹게 되는 순간이었다. 수시로 한반도를 뒤흔드는 미사일 공격도 두렵지만 소형 무인기가 정체를 들키지 않고 백령도 해병대 기지와 청와대 인근을 비웃듯 촬영했다는 소식에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앞으로 한반도에 닥칠 일이 걱정돼서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 목적을 띤 정찰용이다. 카메라를 비롯해 탑재된 장비가 조잡한 무인기 수준이라 장난감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를 얕잡아 봤다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북한이 무인기 기술을 발전시켜 자폭 공격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형 무인기 감시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우리 국방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뒤에야 부리나케 저고도 레이더 구매를 추진하는 등 전력 보강에 나섰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부디 유비무환식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실장과 실장 '심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파악 못한 것은 문제"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강하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군기 확립'과 함께 야권의 '안보 무능'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 또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인 책임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 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개발됐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선준기자 rainkim@metroseoul.co.kr

깍듯한 인사 정홍원(왼쪽)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연계 안돼"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규제 완화를 비롯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라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토지 매수나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균성기자

뉴스&뉴스

靑, 기초공천 관련 회담 거부 통보

● 청와대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회담 요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은 7일 오후 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공동대표는 "박 수석이 지난 4일 만났을 때의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지방대 의무화 추진

● 새누리당은 7일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발표하며 미자금대출 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규제 올해 10%이상 줄인다

안행부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정부가 5만2000건에 달하는 지방 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열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 총량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될 방침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16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 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 관계 부서 간 합동 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로 활용되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 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조현성기자 h@

후보들 金·安에 "사진 좀…" 들이대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사진을 찍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기초선거 예비후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따라 기호 2번을 쓸 수 없게 되자 이들 후보가 명함·현수막에 두 대표와 찍은 사진을 넣어 자신이 야권의 '적통' 후보 임을 알리려고 행사장마다 몰려들어 막무가내식으로 두 대표에게 '들이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두 대표는 당초 묘목 10여 그루를 심고 지역 내 환경보호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인사말을 끝내자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예비후보들로 인해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 대표를 수행하는 당직자가 이들에게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두 대표는 결국 서둘러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당직자들이 행사 초반부터 예비후보들의 사진 촬영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이 이처럼 제지하고 나선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두 대표의 사진을 악용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성기자

외국계 로펌 약진 두려운 수준

거래액 상위 10위권에 6곳 포진…'토종' 부진

지난해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반면 국내 로펌 대부분은 고질적인 '박리다매' 경향을 답습했다. 3년 뒤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국내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블룸버그는 최근 '대한민국 M&A 시장 리뷰'에서 외국계 로펌들이 지난 1~3월 국내 법률자문 시장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10위권 로펌 중 외국계가 6곳에 달했고, 이 중 심슨 대처 앤드 바틀렛이 2위, 프레시필즈 브루크하우스 데린저와 설리번 앤드 크롬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위는 법무법인 세종·광장·태평양 몫이었다. 하지만 올해 태평양은 5위, 광장은 6위, 세종은 10위로 각각 순위가 밀렸다. 시장점유율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거래액 88억 달러로 2위의 77억 달러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36.2%에서 31.9%로 소폭 하락했다.

거래액이 아닌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로펌들의 순위가 높다. 값싼 자문을 여러 건 맡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거래 건수 1~7위는 모두 국내 대형 로펌이었다.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액이 37억 달러에 그쳤지만 거래 건수가 32건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김앤장이 27건으로 2위, 태평양이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외국계 로펌의 약진과 함께 실속 없는 '박리다매'는 국내 로펌의 고질병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로펌 한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중소 로펌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선준기자 rsjun@metroseoul.co.kr

연예인지망생 성매매 적발

호텔이용 영업 일당 구속

연예인 지망생, 피팅모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성들을 불러모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유명 호텔에서 1인당 성매매 대금 30만~7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4억여 원을 압수하고 임씨 등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등 8명,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20명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165명을 모집, 강남 유명 호텔 10여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총 6억여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톡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미기자 hs@

'간첩사건' 증인의 분노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7일 서초동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돼 가족이 위협에 처했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빌린 도박자금 안갚아도 된다"

도박을 하기 위해 빌려간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 자금을 빌려간 신모(54·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율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성창섭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 자금의 대여 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 자금의 대여 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준기자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20년형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 된 둘째 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다투다 때려 숨졌다"는 첫째 딸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모의 진술 강요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계모가 첫째 딸도 상습 학대한 것을 밝혀내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윤다혜기자 yolh@

장학재단 지도자급 멘토링 발대식

한국장학재단은 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5기 지도자급 멘토링 발대식인 '코멘트데이'를 개최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지도자급 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곽덕훈 EBS 사장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로 구성된 '나눔지기' 300여 명과 대학생 '배움지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제5기 나눔지기들은 앞으로 1년 동안 8명 내외의 배움지기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루이 암스트롱 내한공연

1963년 4월 8일 재즈의 선구자 루이 암스트롱이 서울 워커힐 개관을 기념해 2주간의 내한공연을 시작했다.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는 스캣 창법과 즉흥 연주 등을 창안한 그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재즈계의 거성이었다. 이 공연 때 15세의 소녀 가수 윤복희가 게스트로 초대돼 암스트롱의 어깨에 목말을 타고 함께 노래를 불렀고 미국으로 초청을 받는 등 화제가 됐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개관

서울시 노원구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노원구민회관 3층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를 조성, 지난 4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주민 참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받아

서울시 도봉구가 제4회 도봉구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창업 아이템으로 구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문화이해 실전대비 진행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혼이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강사 실전대비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며 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급증

1372센터 2월 접수 결과 1월 비해 45% 늘어

국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 2월 중 접수된 소비자 상담 내용을 집계한 결과, 총 상담 건수는 6만9450건으로 1월 상담 건수 7만6107건보다 6657건(8.7%)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물품 관련 상담이 51.1%(3만5507건), 서비스 관련 상담이 43.0%(2만9817건)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물품' 관련 상담의 감소로 서비스 관련 상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3.6%포인트)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 품목 중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1535건)은 전월(1054건)보다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해약 및 환급금에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가 돼 회사 측에 환급금을 요청했지만 4개월째 지급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았던 서비스는 펜션 관련이 따올랐다. '펜션' 관련 상담(212건)은 영동지역 등 일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펜션 예약 변경·취소가 많아지면서 전월(154건) 대비 37.7%, 전년 동월(131건) 대비 61.8% 증가했다.

/정혜원기자 jenso@metroseoul.co.kr

영장신청서 찢고 폭언한 검사 감찰

수사지휘 받으러 온 경찰에

검사가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안과 관련해 4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모 경사가 찾아와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

택시 편의점 돌진 '날벼락' 7일 오전 5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울산상공회의소 맞은편 한 편의점 입구를 택시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편의점 종업원 송모(19)군이 경상을 입었고, 출입문과 집기 일부가 부서졌다. /울산경찰청 제공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Paru

LAS RUTAS IDEALE

metro France

Le mug sans couvercle fait un tabac à Lyon

돌려닫는 텀블러 머그컵 인기

프랑스 리옹에서 뚜껑이 필요 없이 돌려서 닫는 텀블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리옹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텀블러 '트위즈'는 보수 및 보온에 탁월한 머그컵이다. 하지만 트위즈는 무엇보다 컵의 윗부분을 돌리면 나선형으로 뚜껑이 닫히기 때문에 따로 닫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트위즈 개발자는 "항상 텀블러 뚜껑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트위즈를 사용하면 그런 걱정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etro Russia

Музеон даст

거리음악가에 무대 무료 제공

러시아 모스크바 무제온 공원이 올여름 거리 음악가들이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무료로 무대를 제공한다. 다음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 공원에서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제온 공원 대변인은 "공연은 새 무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며 "현재 공원에서 연주를 희망하는 가수와 밴드의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이지만 관중들은 연주가의 모자나 악기 상자 등에 성의를 표할 수 있다.

metro Brazil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성범죄 추방 캠페인에

지우마 호세프(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호세프 대통령은 최근 '나는 강간당할 이유가 없다'는 캠페인을 열어 화제가 된 기자 나나 케이로스에게 "브라질 정부와 헌법은 항상 폭력 피해 여성 곁에 있다"며 강한 연대감을 표현했다. 케이로스는 지난주 캠페인을 시작한 뒤 '강간하겠다'는 위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로스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브라질 응용경제조사원(Ipea)의 조사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만하다'는 질문에 응답 조사 대상의 65.1%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브라질 여성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 결과에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 많은 여성들이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캠페인을 전한 여성 가운데 한 명인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그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강간 위협을 받았다. 브라질 정부와 헌법은 케이로스와 모든 폭력의 희생양 곁에 있다"는 내용을 올려 캠페인을 지지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한 "그 어떤 여성도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위협받을 이유가 없다. 이번 캠페인을 조직한 케이로스는 내 모든 동료에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세프 대통령의 트윗을 전한 케이로스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사이버 여성 범죄에 대한 법안 통과도 승인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걷고싶은 길 1위 페루 '잉카의 길'

세계 8대 코스 발표 • 2위는 美 그랜드 캐니언 공원

꽃 피는 봄이 오면서 나들이를 즐기는 인파가 부쩍 늘었다. 화창한 날씨에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걷기 열풍'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향한다.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 '론리 플래닛'은 최근 도보 여행자를 위해 '전 세계 8대 걷고 싶은 길'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대망의 1위는 페루 '잉카의 길'이 차지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을 피해 고대 잉카인들이 세운 비밀의 도시 마추픽추. '잉카의 길'은 쿠스코에서 출발해 해발 2400m에 위치한 마추픽추까지 장장 3박4일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산속에 텐트를 쳐야 하고 전문 요리사를 대동해 노상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페루 여행협회 홍보 담당자 프란시스코 바실리는 "손자와 함께 오는 할아버지도 있다"면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마트 안 마추픽추의 전경을 보는 기분은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전문가들은 페루의 건기인 4월에서 10월 사이가 '잉카의 길'을 걷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조언한다. 참가 비용은 1인당 500달러(약 52만원) 정도다.

2위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차지했다. 콜로라도강이 암석을 깎아 긴 시간 동안 빚어낸 절경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한다. 최대 고도 1600m의 산들이 446km나 이어져 있다. 칠레 남부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242㎢에 달하는 면적 위로 난 길을 걷고 있으면 높이 3000m에 달하는 눈 덮인 산이 사나운 인사를 건넨다. 파란 하늘을 유유히 나는 독수리와 수줍은 듯 고개 숙인 꽃들도 방문자를 반겨준다. 비바람에 대비한 두툼한 옷이 필수다. 공원 입장료는 38달러(약 4만 5000원)다.

이 밖에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알프스 '오트 루트'가 4위,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하와이섬의 '칼라라우 코스'가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호주의 퍼눌루루 국립공원, 7위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8위는 네팔의 에베레스트 전망 코스가 꼽혔다.

/크리스티안 헤주스 솔리스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체크카드 결제 취소 '늑장 환급' 없앤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하면 어느 때라도 결제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거래 취소 시 결제대금 환급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4월부터는 취소 1일 이내, 오는 4분기부터는 거래 당일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체크카드 회원이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 정산도 신용카드 정산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당일 이후 거래 취소 시에는 취소 승인 자료가 아닌 취소 승인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대금 환급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시간이 최소 1~2일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4월 이내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거래 취소 익일에 결제대금 환급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업계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후속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박의원기자

타요버스처럼 은행도 달린다

금융소외층 찾고 아동찾기 트럭 캠페인 등
앉게 창구영업 벗어나 이동점포 출발 행진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웃는 얼굴. 빨강·파랑·초록·노란색으로 래핑된 시내버스가 서울을 휩쓸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꼬마버스 타요'가 '타요·로기·라니·가니'의 캐릭터로 디자인돼 시내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타요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창구 안에서만 있던 은행이 버스를 타고 고객을 직접 찾아온 것.

그간 은행 이동점포라고 하면 명절이나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금융 거래가 힘든 지방에서 한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이 버스를 타고 쉽고 빠르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활용성이 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일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해 버스형 이동점포를 개점했다. 금융 상담 및 금융 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버스 내부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대와 금융단말기, 스마트폰, 위성 송수신 장비, 대형 LED 등 첨단 장비가 갖춰졌다.

개점식에서 김주하 은행장은 "이제 고객이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이동점포를 이용해 고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도입한 'KNB 무빙뱅크'를 통해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찾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4t 트럭을 특수 개조한 이 이동점포는 외부 상단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최신식 금융시설과 자체 발전설비, 위성 송수신 장비, 대형 LED 전광판 등의 최첨단 설비를 탑재한 KNB무빙뱅크의 이동 특수성을 활용해 이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점포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최근 이동점포 '뱅버드' 4대 중 1대를 신차로 교체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행사에 뱅버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뱅버드는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단말기와 자동화 기기가 설치돼 있어 일반 영업점과 동일하게 입출금, 송금, 환전, 예금 상품 가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버스 안에서는 전문적인 금융 상담도 이뤄진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이 선보인 '금융사랑방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 활동에 바쁜 소외 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 민원 상담, 서민 금융 지원, 불법 금융 거래 피해 접수, 금융 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봉사, 농촌 봉사활동 등을 병행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됐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이주열 총재 금리동결 전망

10일 한은 금통위 첫 주재

오는 10일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금리 조정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 교체에도 당분간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여건도 전달과 비슷해 뚜렷한 금리 조정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없으므로 이 총재가 이끄는 한은에 상당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 2.50%는 이미 경기 부양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3분기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끝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 2.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이 총재는 당분간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ANZ 레이몬드 융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총재가 바뀜에 따라 즉각적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결론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총재가 당장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성장률 둔화 감안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

나이키 '월드컵 박스' 뚜껑 여는 재미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나이키 매장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월드컵 상품 및 시크릿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1985.70 (+1.81)	554.23 (-6.21)

금리	환율
2.87 (-0.01)	1054.90 (+0.10)

뉴스 & 뉴스

불법 대부 전단 최근 급감

●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스팸 문자 등이 금융 당국의 집중 단속 이후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 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하고 수시 의뢰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도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000건, 올해 1월 12만3000건에 달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 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박상원기자

파생상품 거래량 4분의1로

● 지난해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은 늘었지만 한국은 2년 새 4분의 1로 감소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은 미국 선물산업협회(FIA) 통계 기준 전년보다 2.1% 늘어난 216억4000만 계약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래소의 거래량은 2011년 39억3000만 계약에서 2012년 18억4000만 계약으로 53.3% 급감했고, 2013년에도 55.3% 줄어 8억2000만 계약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거래량 기준 세계 파생상품거래소 순위는 이 기간 1위, 5위, 9위로 밀려났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 겸 편집인 남금현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9

삼성 '20년 연속 PC 1위' 이을 신제품 삼성전자는 20년 연속 국내 PC 판매 1위를 기념해 노트북 '삼성 아티브 북9 스타일(NT910S5J-K28WR)'과 '아티브 북9 2014 에디션(NT930Z5J-K52S)' K32미 일체형PC '아티브 원7 2014 에디션(DM700A4J-KN20)' 등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고객 공감' 챙기는 은행장

국민 이건호 '스토리 있는 금융' 신한 서진원 '따뜻한 금융' 등 화두로

국내주요 은행들의 2분기 영업 원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수익원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주요은행들은 2분기를 맞아 행장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 강조하고 새로운 영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유대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4월을 맞아 "스토리가 있는 금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며 "최근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신뢰의 위기에서 KB국민은행을 지켜낼 근본적인 대안은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스토리가 있는 금융은 고객 얘기 즉,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고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과 진심으로 공감함으로써 고객의 평생의 금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화두로 꺼냈다. 서 행장은 "올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진일보한 방식으로 고객,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따뜻한 금융 2.0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진원 행장은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창조적 금융을 적극 펼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철저히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객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먼저 활동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객 이탈을 방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지속적인 신규고객의 발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본부부서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를 통해 고객이 하나은행 영업점에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희기자 seo@metroseoul.co.kr

1조 받고 딴청 부린 동부그룹

금감원, 구조조정 최후통첩

금융 당국이 채권단에 이어 동부그룹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그룹 고위 임원들을 호출해 자구 계획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자구 계획을 발표한 후 채권단으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은 동부그룹은 여전히 핵심 자산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동부그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김준기 회장에 대한 경영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에도 동부 임원들을 불러 같은 내용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이 특정 대기업 임원들을 두 차례나 소환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패키지로 포스코에 매각하라고 동부그룹에 요청하고 있으나 동부는 다른 매수자들이 많다며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해원기자

더운 봄 에도 식중독 걱정 마세요 롯데마트는 4월 들어 지속되고 있는 고온현상으로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빠르게 하절기 식품위생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박스 코스피' 답답! 증권사 해외 사냥

대신·KDB대우 글로벌 투자 리서치팀 활동

국내 박스권 장세에 지친 증권사들이 전세계 유망자산을 찾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월 신설된 리서치센터의 알파리서치팀이 다음달 중으로 프리미엄 형식의 보고서를 첫 발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알파리서치팀은 기업분석부에 소속된 부서로서 6명의 애널리스트가 자율적 꾸려졌다.

이 팀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업황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업종의 부침에 좌우되면서 시장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 팀은 보고서 작성 기간을 기존 리서치팀보다 늘려 내용의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보고서도 기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과 기업에 공개되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도 계획 중에 있다.

대신증권은 이미 지난해 글로벌마켓전략실을 새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 알파리서치팀은 그 뒤를 이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간 연계 분석을 강화할 전망이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지난해 5월 리서치센터 내 크로스에셋전략파트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5명의 애널리스트로 구성된 이 팀은 국내에서 실제로 투자할 만한 30여개국을 선별해 자산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투자 순위를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승우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전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며 "장세가 부진할 때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시장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한다"며 "자산운용사는 물론, 지점과 개인고객 등 리테일 쪽의 수요도 견조하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kim1@

파리 날린 SKT… 진격 노리는 LG유플

보조금 확 줄자 통신1위 하루 가입자 6200명뿐
'단독영업' 나선 U+ 갤S5·무제한 요금 호재 기대

지난 5일부터 단독 영업재개에 들어간 LG유플러스가 주말 기간 본격적인 마케팅에 힘을 쏟으며 가입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순차적 영업정지를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SK텔레콤은 단독 영업을 통해 14만4027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T는 8만435명, LG유플러스는 6만3592명의 가입자 순감이 있었다.

당초 통신업계는 SK텔레콤이 초반 단독 영업에 들어가면서 가입자 유치가 압도적으로 활발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보조금 살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자 이용자들은 시장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통 3사 영업정지가 모두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다시 자연스레 경쟁이 일어나면서 보조금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통신 시장은 냉각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단독 영업 기간 가입자 순증도 일평균 6262명에 불과하다. 이는 영업정지 이전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 같은 통신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순감한 가입자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초기 단독 영업 기간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최근 이통 3사를 통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 마케팅과 '완전무한 요금제'를 앞세워 가입자 유치가 보다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에도 LG유플러스 주요 매장에선 내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통해 보디용품, 샴푸·린스 세트, 화장지 세트, 즉석 원두커피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갤럭시S5 구매 고객에겐 기어핏 또는 갤럭시 기어2 네오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영업재개 첫날인 5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가입자 순증 여부는 8일 확인이 가능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LG유플러스 내부에서는 지난 주말 가입자 순증도 예상보다 활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이 영업정지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SK텔레콤이나 KT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들과 신규 가입자 대기 수요가 몰렸다"면서 "문의 전화도 대거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주말 예상보다 가입자 순증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갤럭시S5 마케팅이나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까지 완전 무제한 제공되는 완전무한 요금제가 입소문을 타면 가입자 유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백화점서 '꿈의 여행' 기내 체험 7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드림 플라이트' 부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실제 운항 중인 항공기의 것과 똑같은 비즈니스석과 기내용품, 무료항공권 발권기를 설치한 '드림 플라이트' 전시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진행한다. /연합뉴스

삼성 메모리카드 '고화질' 쏜다

브랜드 제품 사업 본격화

삼성전자가 고화질(FHD) 영상 시대에 맞춰 성능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메모리카드'를 출시하며 브랜드 메모리카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메모리카드는 성능에 따라 스탠다드, 에보, 프로 등 3가지 라인업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용량(4·8·16·32·64GB)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성능·고품질·고용량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특히 고성능 64기가바이트(GB) UHS 1등급 제품은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사진을 연속 촬영하는 데 적합하다. 최신 콤팩트 카메라에서는 고선명 풀HD 영상을 10시간 이상(67분) 녹화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저장 용량에 대한 염려 없이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껏 담을 수 있다.

성능에 따라 에어로드 블루(스탠다드), 로맨틱 오렌지(에보), 프로페셔널 실버(프로) 등 3가지 컬러를 적용해 사용 가능한 기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성적 느낌을 살렸다.

아울러 용량을 큰 숫자로 선명하게 나타냄으로써 고해상도 영상의 촬영 가능 최소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삼성전자의 강화된 5 프루프 기술(침수, 열, 충격, 엑스레이, 자기장에 의한 데이터 손상 방지)이 적용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30대 그룹 역량강화에 1조7000억 투자

올해 30대 그룹이 연구·개발(R&D), 경영 혁신, 해외 판로 개척 등 협력사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조5942억원보다 7.6% 늘어난 1조71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전경련·동반위)는 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지원계획을 담은 '경제계의 2014년 동반성장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판매·구매(4592억원), 생산성 향상(4527억원), R&D(2855억원) 등 협력사의 기술력과 경영 성과 개선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각각 32.6%, 26.4%, 16.6% 순으로 많았다.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부분은 해외 판로 개척, 보증·대출, 인력 양성으로 각각 전년 대비 16.5%, 11.5% 10.5% 증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창의성과 도전성 등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나가는 상생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30대 그룹 CEO들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창조경제 실현, 2·3차 협력사 성장 지원에 역점을 둬 동반성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펀드 조성, 사내 컨설턴트 200여 명과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삼성협력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는 한편,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내외 벤처에게 개발비를 선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 공동 출원, 현금 보상, 구매 계약 등 성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두탁기자 kimdt@

차세대 한류는 'K-웹툰'

다음, 북미 시장 이끄는 '타파스틱'과 제휴
네이버도 하반기 라인 기반 글로벌 서비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시선집중 7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 보고 있다. /카카오 제공

웹툰이 차세대 '한류'를 이어갈 핵심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웹(web)'과 '만화(cartoon)'의 합성어인 웹툰은 인터넷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만화를 의미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에서 독자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웹툰을 즐기는 유저는 한 달 평균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다음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이버의 '와라 편의점'이 각각 영화와 모바일게임으로 대박을 기록하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의 대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최근 북미 최초의 웹툰 포털 '타파스틱'을 서비스하는 타파스미디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김창원 대표가 운영 중인 타파스미디어는 현재 보유 작가 1200여 명, 에피소드 2만4000편을 돌파하며 출판 만화가 대세이던 북미에서 웹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타파스틱은 북미에서 흥행 가능성이 큰 한국 웹툰 52편을 대상으로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수 편이 사이트 상위권에 포함됐다.

토종 웹툰 덕에 타파스틱은 최근 미국 사이트 순위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잘 알려진 유명 만화사 디시코믹스를 2배 앞지르는 성과를 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툰글로벌매니지먼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페이스북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애덤 디안젤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웹툰을 선봉대로 내세웠다.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런던 도서전에 영어로 번역한 네이버 웹툰을 전시하고 해외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네이버는 하반기에 '라인 웹툰'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용 인구가 많은 영어와 중국어로 먼저 시작한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 부장은 "언어권에 따라 적합한 작품을 제공하고 현지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100대기업 직원 근속 평균 11.6년

국내 100대 기업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 11.6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2개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0~15년 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34.1%), 15년 이상(20.7%), 5년 미만(3.7%) 순이었다. 10곳 중 6곳의 기업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셈이다.

근속 기간별 기업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보면 '5년 미만'(4508만원), '5~10년 미만'(6538만원), '10~15년 미만'(7496만원), '15년 이상'(8040만원, 1개사 개와 평균) 순으로 근속 연수가 길수록 평균 연봉도 높았다.

근속 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19.9년인 KT가 차지했다. 이어 NCC(19.4년), SK에너지(18.7년), 한국전력공사(18.5년), 포스코(18.5년), 기아자동차(18.2년), 현대중공업(18년), 한국외환은행(17.4년), SK종합화학(17.3년), 대우조선해양(16.9년) 등이 뒤를 이었다.

/김학철기자 kmlee@

아빠 품처럼 넉넉… 흑기사 같은 뒷바퀴

염의덕의 차차차

■ 닛산 패스파인더

짐 많은 가족 나들이에 제격인 7인승 모델
급가속땐 4륜구동… 넓은 차폭 국내선 부담

▲한 줄 평가: 레저를 즐기기에 최적화됐다. 혼자 시내에서 타기에는 차체가 크다
▲평점: ★★★★ (별 다섯 개 만점)

산이나 바다로 떠나고 싶은 계절이 왔다. 이때 신차를 구입한다면 1순위로 떠올릴 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닛산은 무라노와 로그, 쥬크를 이미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패스파인더는 이들 차종과 달리 7인승 모델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승차 인원이 늘어나면 가족과 나들이하기에 더 좋고, 3열 시트 공간을 짐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패스파인더는 길이가 5010㎜이고 너비가 1960㎜로, 동급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다. 이 차와 같은 급인 현대차의 베라크루즈는 차체 길이 4840㎜, 너비 1970㎜로 길이가 조금 짧고 너비는 약간 넓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패스파인더가 2900㎜, 베라크루즈가 2895㎜로 역시 차이가 크다.

긴 휠베이스 덕에 실내 공간에는 여유가 넘친다.

파워트레인은 닛산의 주력인 V6 3.5ℓ 가솔린 엔진과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CVT)를 조합했다. 이 조합의 강점은 변속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파워 전달이 충실하다는 점이다. 최고 출력 263마력의 넉넉한 파워가 변속기를 통해 부드럽게 전달되면서 주행을 즐겁게 한다. 엔진의 반응은 초기부터 즉각적이고 고속으로 올라가도 꾸준히 유지된다.

다른 닛산의 모델이 그렇듯이 승차감은 약간 단단한 편이다. 그러나 통통 튀는 정도는 아니어서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다. 단단한 세팅은 고속 주행에서 안정된 주행 감각을 이끌고 피로를 줄여준다.

'올 모드 4×4 i 시스템'은 상당히 지능적인 4륜구동 방식이다. 평소에는 앞바퀴 굴림처럼 달리다가 급가속처럼 접지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뒷바퀴의 구동력을 살려낸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비를 높일 수 있고 4륜구동은 중요한 때만 골라 쓰도록 한 것.

한국 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큰 차체는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국산차 중에 베라크루즈처럼 비슷한 너비를 갖춘 차도 있지만, 베라크루즈 역시 미국 시장을 노리고 개발된 차다.

표시연비는 도심 7.9㎞/ℓ, 고속도로 10.4㎞/ℓ, 복합 8.9㎞/ℓ이고, 이번 시승에서는 6.5㎞/ℓ를 기록했다. 3.5ℓ 배기량의 가솔린 SUV로는 평범한 연비다. 유럽산 디젤 모델보다는 연비가 떨어지지만, 차 가격(5290만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값 대비 가치는 괜찮은 편이다.

/ferrari@

입지 좋은 오피스텔 "날 좀 보소~"

대형 건설사 4·5월 분양대전 — 마곡·용산 등 공급

올봄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이 잇따라 분양된다. 지난 2월 26일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오피스텔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지만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고,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여전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4월과 5월 서울에서만 3개 단지 1984실 규모의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동대문, 마곡지구, 용산 등 임대 수요가 많거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 위주로 분양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3㎡ 오피스텔 525실과 19~36㎡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로 구성됐다. 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도심 출퇴근 직장인은 물론 인근 고려대, 경희대 등의 대학생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좋은 입지와 상품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며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최대로 한 자주식 주차장 등을 강조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권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서구 마곡지구 B5-2블록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도 4월 중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22~39㎡ 510실 규모로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초역세권 단지다. 지구 내 핵심 업무시설인 LG사이언스파크와 대표 편의시설인 신세계몰, 이마트가 접해있다.

최근 용산 개발 이슈로 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용산전면2구역에서도 주상복합 '용산 푸르지오 써밋'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외 전용면적 25~48㎡ 6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지어지며 전부 일반 분양된다.

같은 달 삼성물산도 용산전면3구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에 나선다. 전용면적 42~84㎡ 782실 중 597실을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하고 여의도 면적 규모의 용산가족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환경이 쾌적하다. 1호선과 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가깝다.

임세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오피스텔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1억~2억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데다 인구 구조 및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들 중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우건설이 이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분양 예정인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 4~5월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 분양 물량

건설사	위치	단지명	규모(일반분양)	전용면적(㎡)	분양일정
대우건설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	524	19~36	4월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510	22~39	4월
	용산구 한강로2가 전면2구역	용산 푸르지오 써밋	650	25~48	5월
삼성물산	용산구 한강로2가 전면3구역	래미안 용산	782 (597)	42~84	5월

분양일정 및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각 업체

역삼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기념 입시설명회 GS건설이 지난 주말 올해 첫 분양 단지인 '역삼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이벤트로 개최한 입시설명회에 약 200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GS건설 제공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 24.7%↑

6조9946억원 집계

지난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공공 부문 발주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작년 2월 5조6099억원과 비교해 24.7% 증가한 6조99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공공부문이 3조40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2%나 급증했다. 우란천 양화천 하천공사를 비롯해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송산그린시티 하수처리시설, 정읍~신태인 및 얼로~몽탄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가 79.5% 증가한 영향이 컸다.

건축공사도 기숙사 및 LH아파트와 같은 신규 주택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사무용 건물, 학교·병원·관공서 등의 발주량 증가로 1년 전과 비교해 수주액이 44.1% 늘었다.

이에 반해 민간 부문 수주액은 3조5889억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건축공사가 사무용·학교·병원·관공서 건물 등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 부문과 공업용, 기타 문화시설 등의 부진으로 0.4% 줄어든 3조1727억원을 기록했다.

그나마 토목공사는 주거환경 정비나 마을개선사업 등 발주량이 늘면서 작년보다 4.1% 증가한 4163억원을 수주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의 투자 증가세와 함께 주거 부문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주액이 늘고 있다"며 "다만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주택 부문의 보다 확실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 취소… 시장 위축되나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 시장은 작년 말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부쩍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등을 돌리며 약세를 보이던 터였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법원3부가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 200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원 간 갈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그러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시장 회복과 함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올 들어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예상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추가 분담금이 발표되면서 다시 거래가 끊기고 호가도 빠졌다. 인근 K부동산 관계자는 "안 그래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매물이 늘면서 3000만원까지 가격을 내렸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S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가장 문제가 추가 분담금인데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개선은커녕 오히려 조합원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문제는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재건축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미 지난 3월 셋째 주 10주 만에 -0.09% 하락세로 전환한 뒤 주간 -0.13%, -0.12%씩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장재현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재건축 시장의 약세는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추격 매수세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가락시영 사례에서도 보듯이 재개발 와 재건축에서도 추가 분담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되면서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개소

아파트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 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지원센터 신설은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해임이나 관리비와 관련된 민원·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 1만1323건으로 늘었고, 공동주택 관리 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민원, 관리비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도색, 방수·승강기·배관 등의 각종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 입찰과 계약 사설 관리 등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도 지원해준다.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선옥기자

'백신 라이프' 와이파이보다 LTE 접속

'윈도XP 지원 종료' 공포도 정보보안 습관들이기 나름

IT보안 전문가 피도사 대리의 해킹 바이러스 예방 24시

"윈도XP 지원 종료 때문에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이 털려나가는 것은 아닐까."

2000년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Y2K(밀레니엄 버그)'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8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XP 지원을 종료하면 해킹 공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백신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보안 대응팀에서 근무하는 피도사 대리의 24시간을 통해 '정보보안 위기'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IT 전문가의 바쁜 일상을 공개한 피 대리는 "윈도XP 이외에 어도비·오피스·아래아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패치를 깨야 한다"며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해킹·스미싱 등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오전 8시

출근하려고 지하철에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체크했다. 유학을 떠났던 대학 동기의 반가운 문자메시지도 있었지만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도 5개에 달했다. 궁금하긴 했지만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감하게 삭제했다.

• 오전 9시

회사에 도착했더니 고객센터에서 코스트파밍 변종 악성코드가 또 접수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즐겨찾기나 검색을 통해 은행 사이트 등에 접속해도 해커가 만들어놓은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알약 등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 정오

회사 앞 대리점에서 어머니에게 새 스마트폰과 함께 원격 점검 서비스가 기능한 알약안심케어를 선물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설정 보안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를 체크 해제하고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도 신청했다.

• 오후 1시

윈도XP 종료에 대비해 출시 준비 중인 취약점 대응 솔루션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취약점 공격에 특화된 이 솔루션은 알약 등 다른 백신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만큼 검토할 것이 많다.

• 오후 3시

외부 미팅 때문에 들른 회사 앞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LTE로 접속해 e메일을 확인했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해킹 위험이 크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반드시 LTE로 전환해 사용한다.

• 오후 6시

퇴근길에 대학 친구가 무선 공유기를 새로 구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무선 공유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비밀번호와 맥(MAC) 주소 등록 등 2단계 인증이 가능한 공유기를 추천했다.

• 오후 8시

사이트별로 따로 만든 비밀번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펫스장 코치에게 비밀번호 만드는 '비법'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메트로신문 사이트의 경우 metro의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바꾸고 2014년 2분기라는 뜻에서 142를 더해 metr0142로 만들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교체해도 기억하기 쉽다.

피도사 대리가 스마트폰 해킹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ny

콤콤IT리뷰 - 필립스 헤드폰 '피델리오 L2BO'

오렌지 라인만큼 선명한 사운드

필립스 100년 기술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음향·디자인 감탄할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 기기의 주요 쓰임새인 '음악 감상'은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됐다.

하지만 번들로 나오는 이어폰에 만족할 수 없는 사용자들이 늘면서 특화된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디오 관련 브랜드의 절대 다수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다.

우리에게 전기 면도기·다리미·토스터 등 가정용 가전제품 브랜드로 익숙한 필립스 역시 그중 하나다. 필립스가 100년이 넘는 음향 기술 노하우를 가졌다고 하면 놀랄 수밖에 없다.

필립스는 보급형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피델리오'라는 별도 브랜드를 사용한다. 도요타가 일반 차와 달리 럭셔리 제품에 '렉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에 사용한 제품은 피델리오 헤드폰 라인의 기운데 'L2BO'다. 이 제품은 필립스의 음향 기술과 디자인을 마음껏 담아냈을 뿐 아니라 가격도 35만9000원으로 고려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한 장점이 있다.

필립스의 안방인 네덜란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렌지 컬러가 블랙톤이 지배하는 제품에 포인트를 주는 첫인상은 반할 수밖에 없다. 무채색의 남성 슈트에 잘 어울린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고성능 40mm 네오디뮴 드라이브를 적용해 모든 음색과 음질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도 마음에 들지만 밴드를 중앙에 위치시켜 중저 음역대에서도 풍부한 음질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실용 디자인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셸과 하우징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감싸 진동이나 공명, 소음 등을 차단해 음악 청취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최고급 메모리폼 쿠셔닝 이어패드를 적용했다. 별도의 마이크를 장착해 휴대전화 통화도 가능하다.

재미있는 것은 장시간 착용했을 때 정수리 부분이 살짝 아픈데 이는 헤어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헤드폰을 쓰고 나면 머리 윗부분이 눌려 스타일링을 다시 해야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다. /서상훈기자 ze=9

내 '뮤직허그'로 친구 초대해 함께 감상

KT 국내 첫 대화형 음악소셜앱 오픈 기념 전국 무료듣기 제공

가족·친구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신개념 음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T뮤직은 음악 사이트 지니를 기반으로 최근 출시한 실시간 대화형 음악 소셜 서비스 '뮤직허그'가 국내 최초 실시간 대화형 음악 소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뮤직허그는 지니 사이트(www.genie.co.kr)에 '내 뮤직허그'를 만들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친구와 음악을 함께 듣는 동시에 실시간 대화도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이뤄진다.

지니는 뮤직허그 오픈 기념으로 '친구의 뮤직허그'에 초대된 고객에게 뮤직허그 서비스 내에서 음악 전곡 무료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뮤직허그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uB24L1ihpDY&feature=youtu.be)에도 뮤직허그 이용 가이드를 등록해놓았다.

장준영 KT뮤직 플랫폼 사업본부 본부장은 "뮤직허그는 개인이 혼자서 음악을 골라 듣는 외로운 음악 이용 패턴을 벗어나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교감을 나누는 따뜻한 음악 서비스"라며 "어떤 장소에 있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악을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음악 소셜 서비스 형태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없이 끝낸다

초기·중기 증상일 땐 도수 운동 요법 도움 말기 접어든 환자 10분 정도 고주파로 해결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에 무거운 느낌을 받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던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회사 근처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을 찾아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힘들게 지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엉덩이 통증과 다리 당김이 생해져 유명 척추 병원들을 방문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비수술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격만 비싸고 효과는 일시적이라 결국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수술이 두렵고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치료받는 강남조이스병원을 나왔다.

주치의인 조성태 병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중기로 진행이 진행됐으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제4~5번,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조 원장은 아픈 부위에 간단하게 요추 신경치료 주사를 시행했으며 B씨는 척추 도수운동치료 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또 개그우먼 김지아와 결혼한 개그맨 권재관은 일주일 전에 발생한 급성 요추 디스크 파열로 얼마 전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가끔씩 요통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권재관은 갑자기 발생한 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강남조이스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조 원장은 응급으로 요추 MRI를 촬영한 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추간판이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려 요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급성 파열형 디스크로 권재관의 상태를 진단했으며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 및 신경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이와 동시에 터진 디스크는 크기가 줄어들어 통증도 호전됐다.

◆일시적 통증 치료하다 병 키워

이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주사 요법, 침치료 등만 받다 질환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는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병원인 강남조이스병원은 이런 환자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진단 후 초·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신경 주사 치료를 실시한 후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인 디스크 환자는 가수 휘성 및 배우 윤계상이 치료받아 유명해진 강남조이스병원만의 디스크 치료술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치료받는다. 10여 분 만에 끝나는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시술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시켜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4-2200, 여의도점 02)786-2200, 교대점 02)525-2100

/황재용기자

조성태(왼쪽) 강남조이스병원장과 개그맨 권재관.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여자 맘 아는 로봇의사…암 흔적 말끔

갑상선·유방·부인암 관련 여성성 보존 치료법 주목

의학의 발달로 소위 '죽을 병'에서 치료 가능한 병으로 암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 치료 시에는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여성암은 여성성을 잃거나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흉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성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소개한다.

◆갑상선암엔 겨드랑이 절개술

과다 진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보통 목 아래 부분을 4~6cm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는 목의 흉터를 남기게 되고 흉터는 외부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겨드랑이를 통해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 로봇절제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 방법은 겨드랑이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또 감각 이상, 목소리 변화 등의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수술은 유방보존술, 유방재건술 등 환자의 여성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환자의 심리 정서적인 치료를 위한 유방암 전문센터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양과 관련 있는 특정 암세포만을 제거해 부작용을 줄인 표적 항암제도 등장했다.

◆최소침습으로 여성 기능 유지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 및 난관의 종양 등 부인암 치료에도 여성 삶의 질을 고려한 수술법이 활용되고 있다.

자궁근종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수술을 통해 작은 상처만 남기며 자궁을 보존하고 혹만 제거하는 수술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로봇수술의 확대된 영상과 정밀한 수술 방법 때문인데 이제는 로봇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배꼽 부위에 하나의 수술 상처만을 내는 로봇을 이용한 단일공수술은 미용적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백지흠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수술 상처만을 남겨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자궁과 난소 등의 생식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특히 로봇 단일공수술은 로봇수술의 장점에 미용적인 효과를 더해 더욱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첨단의술 러시아 상륙

백남선 여성암병원장 등 현지서 선진치료법 전파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하순남)이 해외 환자 유치 대표단을 최근 러시아에 파견했다.

의료원은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심기남 국제협력실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선진 의료 기술을 전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대표단은 하바롭스크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러시아 태평양주립 의대에서는 진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신 유방암 수술법 강연을 진행했다.

의료원은 러시아 의료 시장 공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현지 홍보 마케팅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롯데 맥주 '클라우드' 수입 맥주 맛 도전

정통 독일·일본산처럼 물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 적용
2000억 투입 충주공장서 연간 5만㎘ 생산 · 이달말 편의점·마트 시판

롯데의 맥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산 맥주의 가격으로 수입 맥주의 맛을 선보이겠다는 게 골자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맥주 공장이 있는 충주에서 지난 4일 미디어 설명회 및 시음 행사를 열고 신제품의 특징과 외관 이미지·브랜드명 등을 공개했다.

신제품의 이름은 '클라우드(Kloud)'로 한국을 의미하는 Korea의 'K'와 풍부한 맥주 거품을 형상화한 구름에서 착안해 단어 'Cloud'를 접목했다.

클라우드는 현재 판매 중인 국내 맥주로는 유일하게 오리지널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하고 독일 등 유럽의 엄선된 호프와 효모를 사용해 만든 프리미엄 라거 맥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은 비가수(非加水) 공법으로 발효한 맥주 원액에 물을 타지 않고 발효 원액 그대로를 담아내는 제조 방법이다. 독일·일본을 포함한 정통 맥주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법이라고 한다.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으로 제조된 맥주는 풍부한 거품과 깊은 맛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주 '클라우드'를 생산하는 롯데주류 충주공장 전경. 오른쪽 사진는 '클라우드'가 캐릭 뉴 과 친 지는 생산 공정 /롯데주류 제공

특히 이 제품은 100% 맥아(Malt)만을 사용하는 '올 몰트(All Malt)' 맥주로, 유럽산 와인아로마 호프를 제조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멀티 호핑 시스템'을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 2017년까지 맥주 생산에 1조원 투자, 유통망 총동원한다

지난 2013년 12월 약 2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롯데 맥주 충주공장은 3개 라인에서 연간 5만㎘를 생산할 수 있다. 롯데는 생산설비를 순차적으로 늘려 올해까지 10만㎘, 오는 2017년엔 7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량을 연간 50만㎘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약 2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를 위해 충주시와 부지 조성 등 양해각서(MOU)체결이 완료된 상태다.

롯데 측은 출시 후 6개월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롯데의 유통망을 총동원해 파상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잠섭 롯데주류 영업총괄본부장은 "우선 가정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롯데 계열사인 롯데마트·롯데슈퍼·세븐일레븐 등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기식 롯데주류 맥주영업부문장은 "연말까지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5%를 달성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지다"며 "가까이 월드컵 특수도 호재로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연이어 롯데 계열의 외식업체에 공급하며 경쟁시가 펼치고 있는 맥주 전문점도 인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주류의 이번 신제품은 이달 말부터 전국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산 맥주보다는 비싸고 수입 맥주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제임스딘 속옷 한정판의 유혹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의 브랜드 제임스딘이 '속옷 제기지 2014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좋은사람들 제공

벚꽃와인·팬지와인…잔마다 꽃놀이

향긋한 봄 담은 주류 눈길

새봄을 맞아 국내 주류업계에서 봄꽃을 담은 주류를 잇따라 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화창한 봄날의 벚꽃을 담은 와인으로는 '버니니 블러쉬'가 있다. 이 제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자라난 모스카토 품종을 사용해 깨끗한 피니시와 적당한 농축미를 자랑하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알코올 도수 5%의 저도주로 풍부한 과일과 잘 익은 라즈베리·스트로베리의 풍미가 특징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선화를 담은 주류는 '쿠얼포 피나 콜라다'다. 수선화가 한색을 담기도 했지만 차가운 가질 인공 파리한 스체 또한 이 꽃을 떠오르게 한다. 부드러운 코코넛 향과 달콤함은 극대화해 매력적이다. 알코올 맛이 거의 나지 않아 여성들이 좋아하는 칵테일로도 알려져 있다.

'보가 콰트로'는 농익은 팬지가 생각나는 레드 와인이다. 미세한 타닌과 부드러운 피니시를 자랑하는 보가 콰트로는 카베르네 소비뇽·쉬라즈·메를로·피노네로가 주원료다. 와인을 머금었을 때 묵직하게 입안을 감돌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와인 바틀은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스타일리쉬함을 뽐낸다.

'아그와'는 푸른 새싹 빛을 띠고 있는 프리미엄 코카잎 허브 리큐르다. 해발 2000m의 안데스산맥에서 재배된 최상의 코카잎과 36가지 허브를 추가시켜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의 손을 거쳐 탄생됐다. /정영일기자 jymail@

한우불고기·돼지양념구이 1+1 포장 혜택

강강술래 늘봄농원·홍대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봄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었다.

고양 늘봄농원점은 이달 10일까지, 홍대점은 이달 20일까지 매장에서 소고기류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나갈 때 무료로 포장해준다(점식·세트메뉴·배피아워 제외).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매장을 통해선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 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고기 70%에 흑염자를 첨목한 '흑염자 한돈 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찰찰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 '갈비맛 석고기 육포'(50g·6봉 2만58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 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350㎖·5팩 10인분)은 2만25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코오롱투어와 함께 5명(1팀 2명)을 선정, 중국 웨이하이(위해)시의 초특급 당박호텔 2박3일 숙박권(조식 2회·온천스파 1회 포함)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무료 후원

'전화' 및 '인터넷'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 노인에 무료 치료 캠페인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노화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해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특히 무릎 내에 위치한 연골은 완충 작용을 하며 관절의 운동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으로 한번 손상되면 자체적으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연골이 닳아 손상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며 통증이 없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약 평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생긴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 세 단계로 나뉜다.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서로 맞닿은 상태인 퇴행성관절염 말기에 이르면 인공적인 관절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중기에 질환을 발견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연골을 재생시켜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다.

◆줄기세포 연골재생을 의 기적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는 미처 분화하지 않은 세포로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면 신체 부위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 세포로 분화하는 특징이 있다. 즉 무릎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연골로 분화돼 재생이 촉진된다. 게다가 관절염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환자의 골수와 지방, 그리고 타인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상태 줄기세포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연골 손상이 경미한 관절염 초·중기 환자들에게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외계층에 '무료 치료' 손길

문제는 줄기세포 치료가 최근에 도입된 치료법으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실제로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이 많다.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대주)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엄 대장의 의지에서 시작된 '무료 줄기세포 치료 캠페인'을 통해 환자를 지원하는 것.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8(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캠페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캠페인의 주관사로서 저소득층의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의 우수한 효과가 국내외로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무릎 건강을 되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치윤기자

ADHD·파킨슨병 건강강좌 잇따라

서울이산병원(병원장 박성욱)이 8일 오전 10시 병원 동관 소강당에서 '산만한 아이 행복하게 키우기'라는 주제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이해와 치료에 대한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김효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의를 맡아 ▲ADHD의 이해와 치료 ▲산만한 아이 양육법 ▲산만한 아이 학습 지도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해누리타운에서 파킨슨병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파킨슨병 바로 알기-운동 증상의 이해와 치료(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파킨슨병 환자 실생활 지침-파킨슨병 이렇게 관리하자(유지영 이대목동병원 교수) ▲파킨슨병의 운동 치료(박종선 작업치료사) 등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유제훈기자

러시아 부부 20쌍 '한국전통체험+불임치료'

외국인에 소문난' 산부인과 전문 미즈메디병원 신개념 체류형 의료관광 선사

불임 치료를 위해 국내 병원에 머물러 있는 해외 환자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강원 평창군 소재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정강원)과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러시아 의료 관광객을 위한 웰니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미즈메디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며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러시아 부부 20쌍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우선 참가자들은 투어에서 오동나무로 만든 대형 함지에 10여 가지 유기농 채소들을 한꺼번에 넣어 비벼 먹는 '비빔밥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이후 이들은 전통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한국 전통 음식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전통음식박물관'을 방문했으며 떡메를 직접 쳐보며 전통 방식으로 인절미를 만드는 시간도 이어졌다.

또 미즈메디병원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주제로 신동혁 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을 준비해 이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즈메디병원 관계자는 "이번 투어는 불임 치료를 위해 2주에서 한 달간 장기 체류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주말을 이용해 진료 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 투어와 같이 체류형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독창적인 진료 외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해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미즈메디병원은 불임 치료 및 시험관 아기 시술, 부인과 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000여 명의 외국인이 미즈메디병원을 찾았으며 그중 약 80%의 환자들이 불임 치료 및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적극적 연애타입 채린 나와 정반대"

'세번 결혼하는 여자' 손여은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에서 감정을 주체 못 하는 계모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손여은(31)은 '세결여'에서 이름을 알린 데뷔 10년차 연기자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냈다는 그는 '세결여' 속 채린과는 달리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귀 기울이게 하는 천생 여자였다. 한나영이라는 본명 안에 감춰진 배우 손여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MBC '구암 허준'(2013) 당시 '세결여'에 캐스팅됐다고 들었다

왜 캐스팅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작가가 첫 리딩 때도 별 말씀 없으셔서 불안했다. 분명히 불만족스러웠을 텐데 유독 나한테만 말을 안 해주셨다. 여쭤보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해주셨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현 작가의 대본은 대사마다 의미가 있고 작품 안에 인성이 있다. 다른 인물들의 신관을 읽다가 채린의 방향성도 찾아갈 수 있었다. 대본이 교과서 자체였다.

> **대본 보고 또 보니 캐릭터 감 잡혀 매몰찬 의붓 엄마로 종 떴어요 요즘 재즈블럭…즉흥연주 즐겨**
>
> ”

- 극중 분노의 피아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사실을 안 작가가 넣어 준 장면이다. 당시 연주했던 곡도 '운명 교향곡'인데 채린의 감정을 담아 직접 편곡도 했다.

- 피아노 전공이면 음악에 관심이 많겠다

음악과 연기는 예술로 묶인다. 클래식부터 엔디음악 등 가려 듣지 않는다. 요즘엔 재즈에 빠져서 즉흥 연주를 즐기고 있다. 아날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 있었다. 아빠는 LP판을 즐겨 들으시고 엄마는 고전 영화를 좋아하신다. 피아노는 여섯살 때 언니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따라 치면서 시작했다.

- 연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함께했고 예술고를 나와서 당연히 이쪽 길로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길거리 캐스팅이 많이 됐고 '연예인 신기하다.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떨지 않는 나를 보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 어느덧 데뷔 10년차다

'세결여'를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떴다'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지금처럼 큰 관심을 받기 전에도 꾸

나아갔을 뿐 없었다. 10년을 꾸준히 연기한 건 아니다. 2년 정도 파업과 소속사 문제로 잠시 중단한 적도 있다. 영화 작업을 좋아해서 단편영화 영화제도 다녀왔고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도 하는 등 계속 활동했다. 공백기를 연기로 채우며 미래를 생각했다. 지금처럼 반응이 좋으면 행복하지만 많이 반응한다는 것만 다를 뿐 연기하는 자세는 똑같을 것 같다.

-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나리오를 꼼꼼히 보고 있다. '세결여' 이후엔 캐릭터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며 다음 작품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고를 예정이다.

- '세결여' 채린의 패션이 연관 검색어를 장악했다. 평소 스타일은 어떤가

이렇게 사진 촬영을 끝내자마자 벗고 있던 귀고리도 뺄 정도로 심플한 옷차림을 즐긴다. 채린의 경우 스타일리스트와 매 장면마다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많이 했다. 화제가 된 채린이 블라우스는 남편 정태원(송창의)의 이혼 선언 후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행동하겠다는 의지에서 착용한 건데 반응이 클 줄은 몰랐다.

- 채린은 사랑을 갈구했다.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가

채린이에게 많은 걸 배웠다. 연애할 땐 채린처럼 매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론 좋아하면 오히려 감추는 편이라 정작 좋아하는 사람은 내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 또 연애를 안 한 지 4~5년 정도 돼서 잘 모르겠다.(웃음)

- '세결여'는 특별한 작품일 것 같다

기억에 많이 남을 작품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채린을 연기하면서 순발력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 손여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다음엔 현실적인 작품에서 만났으면 한다.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고 싶고 '손여은이 이런 역할까지도 하는 배우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다. 기대해 주시면 길이 날 것 같다.

/권효진기자 joonhj85@metroseoul.co.kr

디자인/이은지

팬과 소통에 나선 크레용팝이 지난 3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왼쪽). 4인조 걸그룹 원피스와 에이핑크는 5일과 6일 깜짝 미니 팬미팅을 각각 진행했다.

걸그룹 "신비주의는 가라"

크레용팝·원피스·에이핑크 팬미팅 등 솔직한 모습으로 소통 강화

최근 스타들이 인기를 지키기 위한 신비주의 전략을 깨고 팬미팅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걸그룹들은 무료 쇼케이스와 깜짝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신비주의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연예계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다.

지난해 '빠빠빠' 열풍을 몰고 온 걸그룹 크레용팝은 신곡 '어이' 공개와 함께 팬 곁으로 돌아왔다. 크레용팝은 광화문에 이어 부산, 명동에서 깜짝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며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쇼케이스를 광화문과 부산에 이어 명동까지 세 번에 걸쳐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크레용팝 소속사 관계자는 "신인 때부터 길거리 게릴라 공연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크레용팝이다"며 "그때와 비교해 인지도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졌지만 팬들과 시민들 앞에 직접 찾아가 컴백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여러 번에 걸친 쇼케이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4인조 걸그룹 원피스(1PS)는 데뷔후 첫 팬미팅을 진행하며 진솔한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5일 개나리가 연상되는 노란 원피스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팬들 앞에 선 원피스는 팬들과 함께 팬클럽 이름을 짓고 서로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처음 가졌다. 애교나 춤사위를 보여달라는 팬들의 깜짝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피스 멤버들은 과감한 웨이브와 귀여운 표정 짓기를 선보였다.

이어 방진 때려너 지은은 임창정의 '소주 한잔'을, 윤서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열창해 현장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에이핑크는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깜짝 팬미팅을 진행했다.

에이핑크는 6일 SBS '인기가요' 방송을 마친 후 공연장을 찾아준 500여 명의 팬들을 위해 인근 공원에서 미니 4집 '핑크 블라썸' 발매를 기념한 깜짝 팬미팅을 열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팬 사랑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에이핑크는 얼마 전 팬들을 위해 손수 제작한 쿠키 선물에 이어 이날 역시 피자를 일일이 나눠주며 '역조공'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신비주의 전략은 팬들의 인기를 지속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도 올 수 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며 "평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과 신뢰감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원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엑소 '12인 12색' 몽환적 티저

새 미니앨범 발표를 앞둔 다섯 아이돌 그룹 엑소(사진)가 멤버 전원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지난 2일부터 SM타운 홈페이지와 엑소-K, 엑소-M 공식 홈페이지 등에 새 앨범 콘셉트로 변신한 멤버들의 티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선보이은 엑소는 7일 엑소-K 백현과 엑소-M 첸의 티저 이미지를 끝으로 12명 멤버의 변신을 모두 공개했다.

엑소는 이번 티저 이미지에서 거울에 투영된 모습과 강렬한 컬러감이 어우러진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멤버 각각의 개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 등 발표하는 모든 앨범으로 특급 흥행을 기록한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엑소는 1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컴백을 알리는 '엑소 컴백쇼'를 개최한다. 한편 엑소는 4일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린 청룽(성룡) 자선 콘서트 '[illegible]'에 저우제룬(주걸륜)·완리훙·순난(손남)·장샤오한(장소함)·코코리·세팅펑(사정봉)·팡쭈밍(방조명) 등 중화권 톱스타들과 함께 출연해 1만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인교진·소이현 "사랑에 빠졌어요"

10년 친구서 연인으로

배우 인교진(사진 오른쪽)과 소이현(왼쪽)이 열애 중이다.

인교진의 소속사 메이딘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10년 전 같은 소속사에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된 뒤로 친구로 지냈다. 최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이현의 소속사 카이스트 관계자도 "두 사람은 10여 년간 알고 지냈다. 신인일 때 연기 연습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다. 오랜 시간 봐온 만큼 믿음이 생기면서 최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교진과 소이현은 2007년 방송된 SBS 일일극 '여자 언니 만자'에서 연인 역할로 출연한 바 있다. 또 2012년 JTBC 월화극 '해피엔딩'에서는 부부의 연인을 맺는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인교진은 2000년 MBC 29기 공채로 데뷔했다. 최근에는 MBC 새 수목극 '개과천선' 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소이현은 현재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 출연 중이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박정현 새 앨범에 세계적 뮤지션 참가

가수 박정현(사진)이 18일 발표하는 새 미니앨범 '싱크로퓨전'에서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하며 디바의 명품 음악을 완성했다.

박정현의 소속사 블루프린트뮤직은 6일 새 앨범 수록곡 '더블 키스'의 크레디트를 공개했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 참여했던 폴 잭슨 주니어가 기타리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유명 오디션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연주를 담당했고 주요 시상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등 기타 세션계의 독보적인 인물이다.

폴 잭슨 주니어는 마이클 잭슨의 '비트 잇'의 기타 리프를 연주했으며, 디프트 펑크가 "가장 존경하는 우상"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연주자다.

또 비욘세, 시카고, 셀린 디옹, 시카라·푸이스 미구엘 등 세계적인 팝 스타의 앨범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앨범에 참여한 바 있는 엔지니어 마우리시오 게레로도 박정현과 함께 작업했다.

믹싱을 담당한 크리스 타브론은 미국 레드 줌 스튜디오의 수석엔지니어로 지난해 조용필 19집 수록곡 '바운스'에 참여한 바 있다.

또 국내 뮤지션으로 윤종신이 이끄는 프로듀싱팀 팀89의 작곡가 포스티노가 작곡, 편곡, 백어스·키보드·드럼 프로그래밍·마스터링에 참여했다.

/유순호기자

있는 것들은
모르는
팔자극복
로맨스!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 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효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

강하늘·곽동연 아역 맞아?

주말극 '엔젤아이즈' 드라마 스페셜 '중학생 A양'서 연기 호평

'팜므파탈' 한은정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한은정이 팜므파탈의 매력을 뽐내겠다고 선언했다. KBS2 새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9일 첫 방송)에서 권력과 부를 갖춘 0.001%의 골든크로스 멤버 홍사라 역을 맡은 그는 7일 제작발표회에서 "여자는 누구나 팜므파탈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홍사라 드라마의 시느나가 다른 것 같다. 이번에는 많이 분활할 것이다"고 화끈한 변신을 예고했다. /손진영기자 son@

배우 강하늘과 곽동연이 아역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호평받고 있다.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에서 이상윤의 아역인 어린 박동주 역을 맡은 강하늘은 지난 5~6일 '엔젤아이즈'에서 첫사랑의 풋풋한 감정을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 6일 방송에선 엄마 유정화(김여진)의 죽음과 첫사랑 윤수완(남지현·구혜선)과의 이별로 슬퍼하는 강하늘의 눈물 연기가 압권이었다.

강하늘은 전작 SBS '상속자들'에서 김탄(이민호)의 친구이자 제국그룹 이효신 역으로 "난 지랄이 좋은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괴팍하고 소신 있는 인물로 출연했다.

이후 '엔젤아이즈'에 출연한 강하늘은 제2의 이민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는 "대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캐릭터 흡입력도 있었다. 한번은 해보고 싶었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이상윤도 "아역 분량을 편집실에 가서 봤는데 대본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았다. 박동주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강하늘의 연기를 본 소감을 전했다.

배우 곽동연은 KBS2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에서 어린 신정태(김현중)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지난 6일 KBS2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에선 순수한 10대를 연기해 눈도장을 찍었다.

2012년 KBS2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데뷔한 그는 KBS2 드라마스페셜 '사춘기 메들리'의 주인공 최정우 역을 거쳐 최근 '감격시대-'에서 김현중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올리고 있다. 특히 '감격시대-'에선 김현중과 닮은꼴 외모로도 화제가 되면서 극의 몰입을 높였다.

'중학생 A양'에 출연한 그는 "극중 이해준은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보통 중학생이다. 그런데 입시 전쟁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강남의 한 중학교로 전학을 오고 같은 반 친구 은서를 알게 되면서 변해가는 인물이다"고 자신의 배역을 소개했다.

이어 "'중학생 A양'은 단순 재미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다. 삶이 녹록지 않은 중딩들의 일상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진지한 발언으로 작품에 대한 임의를 대신했다.

/전효진기자 leonhj38@metroseoul.co.kr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강하늘 /SBS 제공 KBS2 '감격시대' 곽동연 /KBS 제공

'왔다 장보리''호텔킹' 출발 좋다

두 드라마 시청률 10%대… 주말 안방강자 자리매김 기대

MBC가 지난 5일 '왔다 장보리'(왼쪽 사진)와 '호텔킹'(사진)의 첫 방송을 연이어 내보내며 주말 안방극장 공략에 나섰다.

'왔다 장보리'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전국 평균 9.8%의 시청률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뒤바뀐 친딸과 양딸이 20년 만에 서로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과 그들을 둘러싼 재벌가 집게 부모 세대의 갈등 등을 그린 '왔다 장보리'는 또 다른 막장 드라마의 탄생이 아니냐는 기우에도 불구하고 2회 방송 시청률이 12.5%로 상승하며 시청자들의 이목 끌기에 성공했다.

'왔다 장보리'에 이어 방송되는 주말 특별기획 '호텔킹'은 이동욱과 이다해가 2006년 SBS '마이걸' 이후 8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호텔킹'은 화려한 캐스팅과 최고급 호텔을 배경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첫 방송 시청률 11.7%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SBS '엔젤아이즈'의 시청률(6.3%)을 가볍게 따돌렸으나 2회 방송분은 10.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했다.

'왔다 장보리'와 '호텔킹'의 첫 회 시청률이 KBS 주말드라마 '정도전'(17.2%)과 '참 좋은 시절'(22.4%)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두 드라마 모두 평균 10%의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주말 안방극장의 새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지민기자 lunakim@

이민호, 박 대통령 토론회 참석에 中 언론도 관심

배우 이민호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한류의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한류스타 대표로 참석했다.

한류스타 이민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이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민호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류의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국내에서 콘텐츠 육성 방안의 하나로 열린 행사가 중국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아 눈길을 끈다.

시나·투도우·소후·인민왕·바이두닷컴 등 중국 포털사이트에는 이민호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민호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국내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인데도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이민호의 초상권 보호 등의 환경적 개선에 따른 소통과 존중의 한류에 대한 소신 발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며 존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호의 중국 시장 진출은 지난 2009년 '꽃보다 남자'로 시작됐다. 중국 한류 개척의 선두 주자로 나선 이민호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드라마 활동을 통해 뿌리 깊은 인기를 쌓아왔다. 끊임없이 팬들과 교류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며 거대한 잠재력을 키워온 것이다.

/장상은기자 yoo@

광기어린 여고생 상상이 돼?

영화 '가시' 250대 1 뚫고 발탁 조보아

"캐스팅 소식 듣고 원하는 대학 붙은 기분이었어요 장혁과 파격 베드신으로 더 주목…크게 신경 안써"

영화 '가시'(10일 개봉·작은 사진)에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파격 발탁돼 화제를 모으는 신예 조보아(23·큰 사진)는 시사회가 열린 며칠 전을 떠올리며 "너무 떨리고 설렜다"는 소감을 털어놨다. 스크린 데뷔작인 이 영화에서 체육교사 준기(장혁)에게 광기 어린 집착을 품는 여고생 영은 역을 맡아 장혁과 파격적인 멜로를 펼친 이 겁없는 신인은 "처음 찍는 영화라 모든 것이 신기했다"며 큰 눈을 더욱 동그랗게 떴다.

◆ '은교'와 비교? 보면 알 거예요

조보아는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사랑을 거쳐 집착으로 변하기까지 영은의 다양한 모습을 스크린에 펼쳐내며 고군분투한다. 장혁과의 파격적인 베드신이 있다고도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베드신으로 더 주목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관객들에게 다른 장면들의 잔상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무엇보다 내게는 피 튀기는 액션신부터 수중 촬영, 다이빙, 와이어 연기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영화였죠."

처음 해보는 영화 연기가 쉬지 않았지만 김태균 감독과 상대 배우인 장혁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는 "모든 신이 내 위주였다. 장혁 오빠가 배려해 항상 기다리면서 나를 먼저 촬영하게 했다. 또 오디션 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현장에서 마음껏 놀게 했다"고 말했다.

영은 역에 최종적으로 발탁됐을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될 줄 몰랐어요. 20년간 공부하고 나서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을 때 기분이었죠. 처음엔 실감 나지 않아 울었답니다."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점에서 2012년 '은교'로 혜성처럼 떠오른 김고은과 비교되며 '제2의 김고은'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역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은교'와는 많이 다른 역할이다. 막상 개봉하면 비교하는 말은 쏙 들어갈 것 같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 '마의' 노출 논란 배우 터닝포인트

본명은 조보윤이다. 2011년 JTBC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메이드 인 유'로 얼굴을 알렸고 그해 tvN '닥치고 꽃미남밴드'에 출연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MBC '마의'에서 유방암을 앓는 미모의 청상과부 서은서로 눈도장을 찍었다.

대전에서 20년간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컸지만 연예계 데뷔를 위해 서울로 상경한 뒤 신인들 대부분이 그렇듯 호된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마의' 출연 당시 가슴 수술 장면으로 인해 불거진 노출 논란과 연기력 논란으로 오히려 더욱 주목을 받았던 그는 "연예계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고난이었지만 쓴 약이 됐다. 배우로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고 지금의 '가시'를 만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스크린 데뷔에 주연을 맡은 게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솔직하고 당차게 대답했다.

"'마의'를 찍고 나서 작품 출연이 어려워졌어요. 아무것도 없던 내게 '가시'는 정말 절박한 작품이었죠. 큰 역할이라고 해서 견디고 피해 다니면 끝까지 피해만 다니는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관객에게도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디션을 봤고, 그런 절실함이 통해 합격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연기가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전형적인 대답이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재미있다. 이번 영화에서 처음 느꼈다. 힘든 게 다 잊힐 정도였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가슴 안에 품은 열정을 짐작하게 했다.

/박진영기자 talk1427@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 [illegible]

손등 문신·손에는 총… '킬러' 장동건

'우는 남자'서 강렬 카리스마

배우 장동건이 영화 '우는 남자'에서 파격적인 변신과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우는 남자'의 개봉을 6월로 확정 짓고 주연배우 장동건의 모습이 담긴 1차 포스터를 7일 공개했다. 그동안 '바른 남자'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장동건은 이 포스터에서 손에는 총을 쥐고 손등 위에는 문신을 가득 새긴 색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는 남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타깃 모경(김민희)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액션물이다.

2009년 개봉한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로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선보이며 628만 관객을 동원한 이정범 감독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인 데다 장동건이 주연을 맡아 제작 단계부터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동건 주연 '우는 남자' 1차 포스터 /CJ엔터테인먼트 제공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한민국 액션 장르에서 전무후무한 총기 액션을 선보인 '아저씨'보다 한층 더 스펙터클한 장면을 보여줄 예정"이라면서 "장동건이 킬러로 분해 역대 가장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김민희는 한층 더 섬세해진 감성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진영기자

현빈 복귀작 '역린' 북미 간다

5월 23일 현지 개봉…25개관서 상영 예정

현빈(사진)의 군 제대 후 복귀작인 영화 '역린'이 국내 개봉에 앞서 북미 개봉을 확정했다.

국내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7일 "'역린'이 5월 23일 북미 전역에서 개봉해 약 25개 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린'의 북미 배급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관상' '친구2' 등 한국 영화의 개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배급사 드림웨스트가 맡았다.

드림웨스트는 "'관상'이 북미에서 개봉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역린'에서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봤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다모'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에 대한 신뢰와 현빈·정재영·조정석·조재현 등 배우들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역린'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북미 배급 이유를 설명했다.

'역린'은 올해 홍콩필름마켓에 참여해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선판매되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드림웨스트는 북미에서 소셜미디어와 유료 시사회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흥행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역린'은 정조 즉위 1년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여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과 역사 속에 감춰졌던 숨 막히는 24시간을 그렸다. 국내에서는 30일 개봉된다. /박진영기자

박세리 "아깝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나비스코 6언더 공동4위

박세리(37·KD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아쉽게 눈앞에서 놓쳤다.

박세리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크라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2타를 잃고 최종 6언더파 282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 선두보다 2타 뒤진 공동 3위에서 출발한 박세리는 1번홀(파4)에서 첫 번 버디를 성공한 데 이어 6번홀(파4)에서 1타를 줄여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언샷이 홀에 붙지 못했고 보기 2개와 18번홀에서 더블보기로 아쉽게 경기를 끝냈다.

박세리는 기대를 모았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선수 중 최고 성적을 올리며 맏언니의 건재함을 확인시켰다.

미국의 알렉시스 톰프슨은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으며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2위 미셸 위(11언더파 277타)를 제치고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suno@

'퀸연아' 떠난 자리 '퀸연재'

리듬체조 월드컵 4관왕…표현력·음악 조화 중시 규정 손연재에 유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손연재가 개인종합 금메달과 함께 전 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개인종합·볼·곤봉·리본 등에서 4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과 잘 맞는 궁합의 연기를 선보인 덕분이다.

지난 시즌 국제체조연맹(FIG) 규정이 바뀌면서 표현력과 음악과의 조화가 중요해져 '표현력의 강자'로 인정받는 손연재는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손연재는 6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대회 볼 종목별 결선에서 17.500점을 받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17.400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메달을 들어 보이는 손연재. /사진=포르투갈체조협회

손연재는 올 시즌 후프 종목에 맞춰 쓴 음악으로 루드비히 민쿠스(오스트리아)의 발레 '돈키호테'의 곡을 골랐다. 볼 종목 음악으로는 러시아 작곡가 마크 민코프의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차분하고 애잔한 분위기의 연주곡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가 채택됐다. 곤봉 종목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겨운 파트리지오 부안느(이탈리아)의 곡 '푸나 메조 마레'를 썼다. 리본 종목의 새 음악으로는 이국적인 풍의 '바레인'이 선택됐다.

손연재는 올 시즌 작품들에 대해 "발레 음악을 좋아해 후프는 클래식한 발레곡으로 택했다"며 "볼에서는 좀 더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곤봉에서는 발랄하고 신나는 모습을, 리본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표현력을 강조해온 손연재는 이날 그 말을 입증하려는 듯 손끝 저리까지 신경 쓰면서 인상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이날 경기에서 손연재는 대회 볼 종목별 결선에서 17.5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곤봉 종목별 결선에서는 17.45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종목이었던 리본 결선에서도 17.150점을 받았다.

한편 손연재는 오는 11일 이탈리아 페사로 월드컵에 연이어 출전한다. /정용운기자 ysoon@metroseoul.co.kr

오승환 일본 무대 연착륙

한신 타이거스 소방수 오승환은 개막 이후 세 번 등판했다. 13명의 타자를 상대로 4안타를 맞고 1실점했다. 폭투가 한 번 있었고 탈삼진은 3개. 한신의 투수진이 초반에 흔들리면서 세이브 상황은 겨우 한 번뿐이었다. 나머지 2경기는 쉬게 이기는 상황에서 등판했다.

상대 타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했다. 3이닝 동안 투구 수가 64개에 이른다. 이닝당 20개가 넘는다. 단 한 번도 삼자범퇴가 없었다. 현지에서 오승환의 투구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특히 후자의 이유는 직구가 자꾸 커트된다는 것이었다.

세이브를 따낸 지난달 30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첫 등구에서 32개의 볼을 던졌고 하시모토 이타루에게는 15개 접전을 벌이는 등 진땀을 뺐다. 스피드는 153km짜리를 찍어 문제 없었다. 그러나 일본 타자들의 커트 능력은 집요했다. 일본 타자들은 빠른 스윙과 컨택 위주의 타격을 한다.

직구로는 상대를 제압하기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경기였다. 그래서 한신과 계약할 때 일본 타자들을 상대하려면 변화구를 장착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았다. 특히 커브, 포크, 투심 등 떨어지는 변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경기의 투구 내용을 보면 오승환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 7점 차에서 9회말 등판했는데 오승환은 이전과는 다른 투구 내용을 보였다. 첫 타자에게 직구만 5개를 던지다 중전안타를 맞았다. 그러자 던지지 않았던 투심과 커브를 섞었다.

다음 타자를 상대로 3구 커브(121km)로 눈을 현혹시킨 뒤 5구 슬라이더(140km)로 헛스윙 삼진을 낚았다. 세 번째 타자는 투심에 이어 포크볼성 슬라이더를 던져 땅볼로 잡았고 마지막 타자는 137km 종슬라이더로 헛스윙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최고 구속은 149km를 찍었다. 날씨가 추워 구속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특히 안타를 맞은 이후 세 타자와 13투구 가운데 5개의 변화구를 던졌는데 효과가 만점이었다. 여기에 직구가 낮게 들어가면서 방망이가 모두 밀렸다. 오승환이 무난하게 일본 야구에 연착륙하는 모습을 확인한 장면이었다. /OBS 야구해설가

'빙속 전설' 이규혁 은퇴 "메달 없어 오히려 다행"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역사 이규혁(36)이 은퇴식을 열고 선수 생활을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이규혁은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동료 선수와 각계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작별을 알렸다.

재치 있는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 이규혁은 "올림픽 금메달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메달이 없어서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전, 20년 전에 메달을 가졌으면 지금의 감사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지한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전설 이규혁의 국가대표 은퇴식에서 이규혁이 제갈성렬 감독으로부터 금빛 스케이트화를 선물받고 박승희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직구 구속 149km… 임창용 11일 1군 복귀

삼성 라이온즈의 원조 끝판왕 임창용(38·사진)이 빠르게 국내 무대에 적응하며 1군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2군에서 훈련 중인 임창용은 6일 1군 코칭스태프 앞에서 구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11일 대구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 경기를 앞두고 1군 엔트리에 등록할 예정이다.

2군 코칭스태프는 합격점을 내렸고, 1군 등록을 위해 류중일 감독의 결정만 남았다. 류 감독은 이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창용을 11일 1군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창용은 6일 경산볼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1삼진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 149km에 구위는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6시즌 동안 일본과 미국에서 쌓은 노련함까지 더했다.

삼성 코칭스태프는 과거 한국에서 힘으로 타자를 제압하던 것과 달리 일본 야구를 경험하면서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한 임창용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삼성은 7~10일 휴식을 취한 뒤 11일부터 홈에서 SK와 3연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